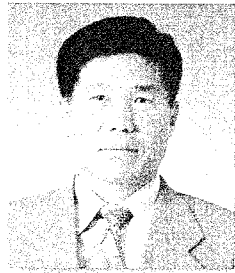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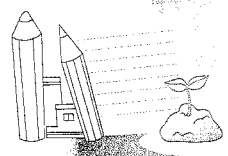




조경수로 무궁화 심고 가꾸기



박형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1. 묘목 굴취 및 관리

무궁화는 유시에 내한성이 약하여 중부 이북지방에서 동해를 받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동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잎이 완전히 떨어진 후인 11월 중·하순경에 굴취하여 다음해 봄까지 움매장(또는 움가식)을 하거나 바람이 없고 양지바른 곳에 가식(假植: 임시심기)하였다가 심는 것이 좋으며,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겨울동안 거치(據置)해 두었다가 옮겨심기 전에 굴취하여 심는 것이 좋다.

묘목을 굴취후 관리는 햇볕에 노출되어 너무 건조해 지거나 가식기간이 길어지면 활착 및 수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을 때까지 이런 점에 유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활착률도 높일 수 있고 좋은 수형의 나무로 가꿀 수 있다.

무궁화는 생명력이 강해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었다가 심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한다. 물론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살수는 있지만 회복되는데 긴 세월이 요구되고 필요한 가지가 고사되면 수형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2. 적지

무궁화는 일반적으로 적응력이 강하여 어떤 곳에 어떻게 심던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각을 달리하여야 한다. 물론 생명력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듯이 나무에 있어서도 똑같다.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꽃을 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심었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도 피지 못하며 단지 무궁화나무의 형태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가 바라는 꽃나무의 구실을 못한다면 오히려 심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을 주기 때문이다. 무궁화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여 그늘진 곳이나 척박한 곳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은 강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꽃은 피울 수 없다. 무궁화는 정말로 군자국(君子國)의 군자처럼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꽃임을 명심하고 양적으로 많이 심는 것보다 적은 양을 심더라도 가치있게 심고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적지를 잘 선정하여 심고 항상 충분한 비배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 토양은 중성 또는 약알카리성인 사질양토
-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
- 약간 습하되 물 빠짐이 좋은 곳
- 햇볕이 잘 들고 바람받이가 아닌 곳

3. 배식법(配植法)

나무를 심을 때는 그 나무의 특성을 잘 알고 심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무궁화는 맹아력, 내음력 등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나라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어느 수종보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수벽용 생울타리로 식재할 것인가? 아니면 정원수 또는 가로수용으로 식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수벽 또는 수형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에서부터 앞으로 관리문제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르게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 단목으로 심기

이 방법은 한 나무씩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식재하는 것을 말하며 꽃을 목적으로 식재할 때에 가장 좋은 배식법(配植法)이다.

· 독립수로 심기

정원수 또는 국기계양대 옆 등에 단목으로 심는 방법으로 수형을 가꾸고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열식으로 심기

가로수 또는 정원의 주위 등에 식재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재거리이다. 무궁화는 은행나무나 회화나무 등과 같이 큰 나무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라고 해서 일반 가로수에 준하여 식재 하거나 또는 작은 나무라고 해서 다른 가로수 밑에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집단으로 심기

최근에 많이 식재되고 있는 배열방법으로 꽃동산을 조성하거나 생울타리를 조성할 때 주로 집단식재를 하게 되는데 군상(群像)으로 심는 방법과 열식으로 심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꽃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벽이나 수형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꽃을 목적으로 할 때

에는 추후 솎아주기 할 것을 고려하여 나무가 서로 닿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고 배치하여야 하나 수백이나 수형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식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목적에 맞도록 수형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품종의 선택도 대단히 중요하다. 배열하는 방법은 'C'자형, 반원형, 'S'자형 등 지형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균상으로 심기

도로변 유희지에 식재하거나 꽃동산 등을 조성할 때 주로 쓰이는 식재배열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에는 3~5본씩 소규모로 모아서 식재할 수도 있고 대단위로 모아서 식재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화려한 꽃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다. 또 여러가지 품종을 혼식하거나 여러 가지 모형으로 식재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 열식으로 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에는 1열로 심거나 2열을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여 심는 것이 보통이나 3열 이상을 밀식하여 생울타리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4. 심는 방법

· 춘식(春植 : 봄에 심기)

이른 봄에 얼었던 땅이 풀리는 즉시 심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눈이 트기 전까지는 심어야 하므로 남부지방에서는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 중부지방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묘(盆苗)로 육성된 묘목은 적기에 관계없이 식재가 가능하며, 어린묘의 경우는 생장 중에 있는 묘목을 식재하여도 활착은 가능하지만 생장 및 수형에 크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기에 맞추어 심는 것이 좋다.

· 추식(秋植 : 가을에 심기)

가을에 낙엽이 진 후 묘목을 굴취하여 바로 심는 방법으로 11월 초 중순경을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봄에 심으면 뿌리의 발육이 빠르지만 가을에 심으면 뿌리의 발육이 되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가을심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가지자르기(전정) 및 수형만들기

무궁화는 일반적으로 가지자르기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목적없이 마구 자르며 가꾸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무궁화는 정아(頂芽)의 우세성이 약한 준정아성(浚井芽性) 나무로 뚜렷한 주간(主幹)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형으로 기르면 옆가지가 잘 발달하여 반원형 또는 장타원형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가지자르기의 효과

- 취향에 맞는 수형으로 만들 수 있다.

무궁화는 가지가 잘 발달하기 때문에 전정을 통하여 어떠한 모양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수종이므로 취향에 맞는 수형으로 가꿀 수 있다.

- 수세를 향상시켜 노화를 방지한다.

무궁화는 정지·전정을 하지 않으면 눈의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하게 발생하여 영양을 분산시키고 이로 인한 영양결핍 현상과 생장 정지기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꽃 모양과 나무 모양이 불균형해 될 뿐만 아니라 수세(樹勢)가 쉽게 쇠퇴하여 개화(開花)가 되면 노령화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무궁화는 유시에 내한성이 약하여 월동 중 주간이 동해를 입히게 되면 아주 작은 가지가 총생(叢生)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발달하여 빗자루 형태로 되기 때문에 노화병자를 위하여는 밀생된 가지를 솎아 주며 전정과 가지자르기를 실시하여 수세를 향상시켜야 한다.

- 주간(主幹)의 수고 및 비대생장(肥大生長)을 촉진시킨다.

무궁화는 주간이 뚜렷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가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영양이 분산되어 수고 및 비대생장이 되지 못하므로 정지전정을 통하여 주간을 영태 또는 2~3가지로 유도하여야 생장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개화기간을 연장시키며, 크고 탐스러운 꽃을 피게 한다.

무궁화의 정지·전정은 수형을 바꾸는데 있어 목적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장기간 연장 및 개화량을 형성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가지자르기를 실시하여 수세를 향상 시켜주면 생육기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꽃피는 기간도 연장되고 개화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충실하고 탐스러운 꽃을 피울 수가 없다.

- 병충해 방제에 도움이 된다.

가지와 눈은 목화진딧물을 비롯한 깍지벌레류의 월



동 중 장간기주가 되고있기 때문에 전정을 실시하여 주면 병충해 방제에 도움이 된다.

6. 가로수 무궁화의 관리방법

· 전정

수목의 수형을 영구히 유지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줄기나 가지의 생장을 조절하여 식재한 목적에 알맞은 수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고, 전정(pruning)은 수목의 관상, 개화결실, 생육상태조절 등의 목적에 따라 정지를 하거나 또는 조경수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정리 작업이다.

그러나 무궁화는 전정을 실시하여 원하고자 하는 수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줄기의 밑 부분을 잘라내어 교목성으로 유도할 수도 있으며 또한 윗부분을 잘라내어 왜성형으로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정을 통하여 무궁화 품종별 각각 어떤 수형을 가지게 되는지를 앞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가로수 무궁화의 전정은 굵은 가지를 솎아내고 곳곳에 잔가지가 뭉쳐 일광의 투사와 통풍이 방해되는 경우 가지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하여 수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가지의 길이를 줄인다. 또한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 정지

정지란 원하는 수형을 위하여 생육에 장애가 되는 죽은가지, 묶은잎, 병든가지, 밀생지등 정리하여 통풍과 산소공급 광합성등을 원활하게 하여 생육에 도움을 주도록하는 가벼운 정리를 말한다.

· 전정의 기본

① 주지는 하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내향지 : 안쪽으로 향한 가지는 자른다.

③ 상향지 : 지나친 상향지는 꽃눈이 부실하며 길이 생장과 과다생장의 우려가 있다.

④ 하향지 : 아래로 향한 가지는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성질로 영양공급을 원활히 받지 못하므로 쇠약해진다.

⑤ 측 지 : 지나친 평행지는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육이 불량할 수 있으며 가장 적당한 각도는 50~60각도 정도가 적당하다.

⑥ 쌍향지 : 같은 방향의 가지들은 경쟁적으로 영양공급을 받아 살아가려는 본성때문에 생육불량한 상태가 올 수 있으므로 하나를 전정하여 나머지 가지를 보호한다.

⑦ 교차지 : 가지가 서로 교차하여 생육불량과 상처를 줄 수 있다.

⑧ 윤생지 : 원래의 윤생지가 아닌 경우는 돌려나는 가지는 자른다.

⑨ 도장지 : 옷 자란가지를 말하며 질소가 많으면 도장지가 많이 생기고 꽃눈이 적고 가지와 잎만 무성하다. 이때 탄수화물을 공급하여주고 도장지를 쳐서 적당히 남기거나 또는 아래로 휘어주면 꽃눈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 시비

거름의 분해속도는 종류, 기상, 토양, 조건, 계절 등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유기물이나 미숙퇴비는 분해가 늦으므로 생육기에 흡수·이용되게 하려면 가을이나 이른 봄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화학비료는 용해가 빨라 필요할 때 수시로 공급할 수 있다. 무궁화는 토질이 좋고 토심이 깊고 보수력과 보비력이 좋은 땅에서 1년에 기비는 꼭 주고 추비도 년 2회 이상 주어야한다. 성목인 경우 본당 유기질 150~200g을 휴면기인 가을 또는 이른 봄에 밑거름으로 퇴비를 2~3kg 정도같이 섞어 주는 것이 좋다. 